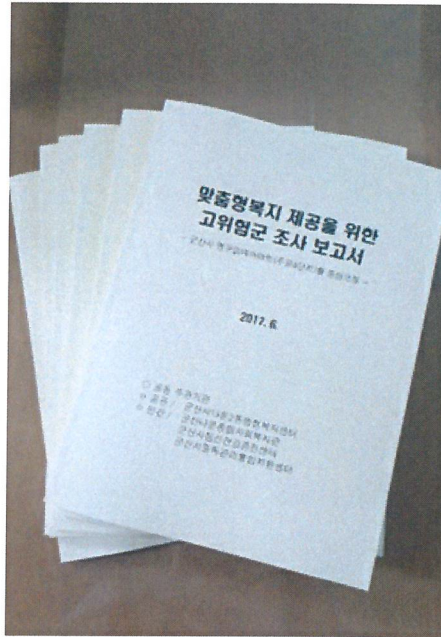




군산시 나운2동은 유관기관(나운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과 합동으로 알콜 중독자, 자살 시도 중독자 등에 대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나운2동에서 실시한 고위험군 맞춤형복지 지원은 서비스 공급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진행한 합동사업으로 고위험군 발굴방법과 연구방법, 민관합동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원을 통해 제공된 맞춤형복지 서비스는 ▲알콜·우울 고위험 상담 및 서비스 ▲기초생계비 조정상담 ▲은둔형 독거노인 발굴 등으로 나운2동에서는 고위험군 특성과 맞춤형복지 서비스의 제공 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해 맞춤형복지 제공을 위한 고위험군 조사보고서를 발행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 복지기관과 연계해 고위험군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한다. 이는 방침이다.

송천규 나운2동장은 "이번 고위험군 조사와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은 민관합동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한 처음의 보고서이며,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복지를 제공해 지역복지 완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수갑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수갑의 다른기사 보기